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8. 9. 12.(수) 총 6매(본문 3,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안준영, 주무관 정성근 • ☎ (044)200-5310, 5315, 5317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황인서, 차장 유정규, 대리 배진호 • ☎ (02)3498-7151, 7155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든다

- 해수부, 점박이물범과 어업인 상생을 위한 복합 해양생태공간 조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목)부터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과 지역 어업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인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1년에 약 200~4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찾아오는 백령도 바다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하여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여 많은 물범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 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물범들의 사례에서 착안하였다.

이번에 마련하는 물범 보금자리는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m³급 자연석만 활용한다. 또한, 물범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네 단계로 차등을 두어 조석에 따라 물범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 물범은 바위에 기어 올라가기보다는 물에 잠겨 있을 때 자리를 확보한 후 조위가 낮아져 바위가 노출되면서 올라왔는 방법을 선호

한편, 인공섬터의 수면 아래는 어초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는 먹이를, 지역 어업인에게는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섬터 조성 공사는 올해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점박이물범과 인공섬터를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점박이물범은 전 세계적으로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귀여운 생김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의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와 황해도 연안, 가로림만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불법 포획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유빙의 감소,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서해안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2015년 10월 '서해 점박이물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체수 변화 모니터링, 구조·치료 강화,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 약 8,000마리(1930년대) → 약 2,300마리(1980년대) → 1,000마리 미만(2000년대)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점박이물범 인공 습터는 더 많은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지역 어업인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바다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p>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참고 1

점박이물범 생태학적 특성

종명	점박이물범
사진	
영명	Spotted seal
학명	<i>Phoca largha</i>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체 : (몸길이) 수컷 1.7m, 암컷 1.6m, (체중) 80~130kg ○ 출생 시: 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평균수명 30~35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 동해, 오희츠크해,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색깔 :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 ○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3월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랴오둥만으로 이동 ○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
비고	<p>「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해양수산부, 2007)</p> <p>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환경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문화재청)</p>

참고 2

사업 대상지역 등

□ 사업 대상지역 및 조감도

- (사업위치) 백령도 하늬바다(해안선 기준 310m 이격, 수심 DL(-) 1.5m)
- (사업내용) 1m³급 자연석을 쌓아올려 인공휴식지 조성*(면적 350m²), 물범 먹이자원 및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큰돌쌓기 시행 등
 - *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주로 물범바위에 서식하나, 개체수에 비해 물범바위 면적이 협소
- (사업기간/총사업비) 2년('17년 설계, '18.8~11 공사)/18억원(국비100%)



□ 쉼터 조성 방안

- 인공적 소재를 지양하고, 1m³ 규모의 자연석을 활용한 '큰돌쌓기' 공법으로 시공하여 생물 부착·서식 기능 강화
 - 전체 구조물을 1m³급의 사석으로만 시공하여 부유사 발생 등 환경영향이 적음
- 물범의 휴식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만조시 물에 잠기는 높이에서 조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식공간이 드러나도록 설치
 - * 물범은 바위에 기어 올라가기보다는 물에 잠겨 있을 때 자리를 확보한 후 조위가 낮아져 바위가 노출되면서 올라앉는 방법을 선호
 - ** 준공 후 물범 먹이 및 지역 어업인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패류·치어 등 방류 예정

참고 3 | 인공시설 쉼터 이용사례

- 물범이 선착장, 부선, 플로팅 도크, 부이, 호안시설 및 테트라포트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휴식지로 활용하는 사례 해외에서 다수 발견

